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대장정 돌입

전야제 공연 '굿이로세' 선보여... 6월 5일까지 제41회 학생전국대회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지난 19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 전야제 공연 '굿이로세'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악계 명인들과 대중가수가 대거 참여한 이번 공연에서는 조종달 명창의 수궁가와 채함순 명인의 푸너리춤 등 다양한 전통 예술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국악인이자 트로트 가수인 신승태, 국악 신동 김태연의 대중가수 공연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금요일 저녁 노송광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23 전주대사습놀이 축하공연 포스터

세, 뽀아놀이' 무대로, △판소리 정재하, 편소영, 정진성 △가야금병창 이정아 △가야 김소리 △한량무 박현준 △

살풀이춤 한성민 △소고춤 이승룡 △경기민요 강산, 이소정 등 대사습놀이 장원자들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어 27일에는 젊은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전통국악 창작무대 '젊음, 창작 그 무한대를 넘다!'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춘향전을 각색한 작품 '땀과 방자!!' △님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발레로 표현한 작품 '쑥대머리'를 비롯, 국악·전통무용·발레 등 지루할 틈이 없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6월 1일에는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민 '팔도귀 명창 한마당'이 펼쳐지고, 6월 3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 정명숙 명인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김일구 명창 등 우리나라 국악계를 지탱하는 역대 대사습 장원자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

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야제 공연 외에도 전국대회 기간동안 장원자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면서 "전주를 찾아주시는 국악 애호가들께서는 전주만의 향기를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주최하고,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와 (주)문화방송, 전주 MBC가 주관하는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1회 학생전국대회'는 오는 6월 5일까지 18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 전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종합본선은 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5일 펼쳐질 예정으로, 판소리 명창부와 무용 명인부 등 주요부문의 치열한 본선 경연은 MBC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인기 아이돌 앨범 선물상자들.

결손가정 어린이들 소원 선물 전달

전주시설공단, 아이돌 앨범·운동화 등 원하는 선물 지원

여느 또래처럼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A양. 학업에도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이다. 좋아하는 아이돌은 걸그룹 '아이브'와 '뉴진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앨범 구입은 '언감생심'. 그런 A양에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바로 두 걸그룹의 최신 앨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도 싹싹히 준비했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19일 '키다리 아저씨'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소원 선물을 전달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인 아이들 10명이 받게 될 선물은 인기 아이돌그룹의 최신 앨범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해 유명 브랜드 의류와 운동화, 한국사 만화 전집, 장난감 세트, 미술용품,

백팩, 여름샌들에 이르기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아이들이 평상시 갖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일일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키다리 아저씨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는 화장지와 라면 등 생필품 위주의 나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전주시드림스타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특히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 결제 때기' 운동을 통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야외행사 만든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서 1회용품 줄이기 등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앞으로 전주지역에서 펼쳐지는 각종 축제와 야외행사를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2023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내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올바른 분리수거 체험 및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서약서 작성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 체험 △1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와 함께하는 '1회용품을 이용한

새활용 체험활동'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협약 체결기관(전주소방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 체험은 행사 기간 내 상시 운영되며, 박람회 관람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다짐하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한 장바구니 또는 친환경 치솔세트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1회용기 없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기 재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2023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용 시스템을 행사장 내에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주지역에서 펼쳐지는 각종 축제

와 행사 진행시 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치매안심센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가져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예방 및 치매극복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걷기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보건소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일 덕진공원 일대에서 김인태 부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운덕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이남숙 복지

환경위원장과 치매환자 가족,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 속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극복을 함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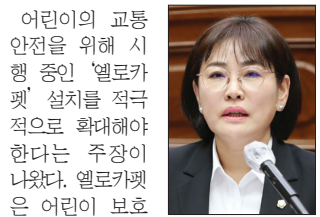
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생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이날 덕진공원 만남의 광장 일대에 부스를 마련하고 △치매사랑 행복만들기 △전주시민 마음충전소 △사전연명의료의향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99세이하는 금연입니다 △자기열관

숫자알기 △모자건강 및 암예방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은 홍보부스 체험 및 기념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체조강사와 함께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한 후 덕진공원 덕진호 주변 산책로 코스를 함께 걸었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천서영 의원, "엘로카펫 설치 확대해야"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엘로카펫'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엘로카펫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인근 바다, 벽면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문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엘로카펫을 가장 먼저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만족도는 70% 이상이지만, 전주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221곳 가운데 49곳에만 엘로카펫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전주시는 설치를 확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지만 너무 더디다는 것이 문제"라며 "올해의 경우 5곳 교체에 1곳 신설 계획이 전부"라고 행정의 적극성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엘로카펫 1곳 설치 단가는 33만원과 120만원 2가지인데, 미설치 구역 172곳에 적게는 57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이면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며 "전주시는 이 돈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주시는 2022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지만 아동이 안전한 도시 정책이 최우수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전라도의 수도 전주' 보다는 '어린이 안전도시 전주'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